

龍門石窟 大萬伍佛像龕 研究

배진달*

차례

緒言	IV. 佛龕의 조성 목적과 편년
I. 佛龕의 구조와 내용	1. 華嚴僧 法藏의 활동과 造成 後援
II. 佛龕 內 諸像의 양식	2. 武周 新字와 佛龕의 편년
III. 諸像의 도상 해석	結語

緒言

北魏가 494년 洛陽으로 遷都한 이후, 龍門石窟의 開鑿이 시작되어 賓陽中洞, 古陽洞, 蓮花洞 등 대규모 석굴들의 조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534년에 북위가 東·西魏로 분리되면서 首都가 鄴과 西安으로 정해짐에 따라 낙양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라기보다는 戰亂의 角逐場으로 변하여 용문석굴에서의 조상활동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唐代에 이르러 낙양이 다시 東都가 되면서 주춤하던 석굴조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 이들 석굴 조상들의 佛教圖像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 졌으며, 조각수준도 상당히 진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 특히 7세기 후반에 이르면 도상내용이 다양해지거나 양식적으로 가장 발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석굴조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미술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大萬伍佛像龕은 “擂鼓臺中洞”으로 알려진 용문석굴의 東山에 있는 佛龕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개설서에서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 정도이다²⁾. 大萬伍佛

*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조교수

1) 曾布川寬, 「龍門石窟における唐代造像の研究」, 『東方學報』第60冊(1988, 3), pp. 205~217.

2) 大村西崖는 “香山寺石窟 第2洞”으로 命名하면서 盛唐 초기의 조상으로 보고 있으며(大村西崖, 『中國美術史彫塑編』, 東京: 國書刊行會, 1980(1917年 初版), p. 511, 附圖 754.), O. Siren은 704년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편년하고 있다(Siren Oswald, Chinese Sculpture from the Fifth to the Fourteenth Centuries, London: Ernest Benn, 1925, vol. I, p. 126). 또 長廣敏雄과 水野清一은 龕內에 武周新字가 刻字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則天武后시대를 조성시기로 보았으며(長廣敏雄, 水野清一, 『龍門石窟の研究』, 東京: 座右寶

像龕이 다른 용문석굴 조상에 비해 전문적인 연구가 늦어진 이유에는 이 佛龕이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서 내외에 개방된 점에 그 연유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佛龕이 개방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이렇다할 연구가 전혀 없었고,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佛龕의 조성시기는 초기의 연구에서와 같이 7세기 말 8세기초로 편년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佛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필자는 앞서 소개한 연구논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편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파악하였으며, 나아가서 佛龕 자체에 대한 연구에 앞서 7세기 후반 8세기초 唐의 역사적 시대상황을 고찰해 봄으로써 석굴조성의 배경을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은 불교의 수용초기부터 나타났는데, 唐代가 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唐初인 650년대에서 680년대 중반까지는 道教, 儒教, 佛敎의 3敎와 政治勢力과의 관계에서 皇室이 이 세 종교에 대해 비교적 공평한 입장이었으나 高宗時代(649년~683년)에 와서는 불교가 우위의 입장이 되었다.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 특히 奘奘을 중심으로하는 法相宗계열의 불교세력이 이 시기의 정치적 성향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⁴⁾. 683년, 고종이 승하하자 그의 부인인 則天武后가 皇帝가 되면서 새로운 종교적 기반이 필요했으며⁵⁾, 이때의 중심세력은 法藏을 주축으로하는 華嚴宗계열의 승려들이었다⁶⁾. 700년경이 되면서 武三思⁷⁾ 등 무후의 외척세력이 득세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道教 信奉의 인물이다⁸⁾.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700년을

刊行會, 1941, p. 121.), 중국 학자들도 則天武后시대로 보고 있다(龍門文物保管所, 北京大學考古系, 『中國石窟·龍門石窟Ⅱ』, 北京: 文物出版社, 1992, p. 273). 1980년대 말 용문석굴 중 당대조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에서 曾布川寬은 佛龕의 도상적인 측면과 양식적인 면, 그리고 刻經에 근거하여 則天武后시기로 편년하였다(주 1의 논문, p. 334). 상기한 연구서들에서는 이 佛龕을 “擂鼓臺中洞”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필자는 佛龕 입구 위쪽의 刻銘에 근거하여 “大萬伍佛像龕”으로 칭하기로 한다.

- 3) 佛龕 조상의 圖像學적인 고찰을 통하여 古正美는 中宗년간인 8세기초를 조성시기로 편년하였다(古正美, 「龍門擂鼓臺三洞의開鑿性質與定年」 龍門石窟研究所 編, 『龍門石窟一千五百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 174~180.). 이 내용은 그녀가 이미 1993년에 龍門石窟開鑿1500周年紀念 國際學術發表會에서 발표한 “擂鼓臺洞의 圖像考察”의 論旨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大萬伍佛像龕이 禪窟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발표요지문에는 원래 “北魏靈太后時期的 佛敎活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발표 당일 본 주제로 변경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요지문은 남아 있지 않다).
- 4) 任大熙, 「七世紀 後半期的 唐代政治와 宗教에 관한 一考察」, 『芝邨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4, pp. 1157~1161.
- 5) 『舊唐書』에 의하면, 武后는 655년에 황후가 되고, 660년경부터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664년 이후부터는 “二聖”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聖神皇帝”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693년 이후이다. 『舊唐書』 卷6 [本紀]第6 「則天武后」, pp. 115~117.
- 6) 임대희의 앞 논문, pp. 1161~1162.
- 7) 『舊唐書』 卷183 [列傳]第 133 「外戚」, pp. 4734~4736.
- 8) 임대희의 앞 논문, pp. 1165~1169.

전후한 시기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당시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자였던 則天武后와 불교와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武后의 집안은 대대로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그녀가 入宮하기 전인 14세 때에 이미 沙彌尼가 되었으며, 입궁 후 太宗의 後妃가 되었다가 太宗이 죽은 후에는 感業寺의 女僧이 되었다⁹⁾. 670년, 母親 楊氏가 사망하자 兩京의 生家를 개조하여 東·西 太原寺를 건립하고 華嚴僧侶인 法藏을 主持로 삼았다¹⁰⁾. 모친이 사망한 후, 불교를 他宗教에 비해 특히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西京 實際寺 僧侶 善導禪師가 주도해서 675년에 완성된 용문석굴의 奉先寺洞이나¹¹⁾ 677년에 조성된 長安 光宅寺 등의 활발한 造像 및 造寺활동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¹²⁾. 아울러 그녀는 법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화엄에 대한 강의를 받았고¹³⁾ 699년에 完譯된 80卷本 『大方廣佛華嚴經』의 序文을 직접 쓰거나¹⁴⁾ 『華嚴經傳記』 編纂을 주도하기도 하였다¹⁵⁾. 이처럼 무후는 개인적으로도 불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화엄계열의 법장세력은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즉천무후 시기에 상당량의 경전이 번역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당 시대에 국가가 주도한 경전의 번역은 629년에 시작되어 811년까지 지속되었는데¹⁶⁾, 대부분이 玄奘, 法藏, 義淨이 활약한 7세기 후반 8세기초에 번역이 이루어졌다. 번역에 종사했던 사람은 총 26명으로, 특히 7세기 후반에 화엄경전류를 많이 번역했던 서역의 호탄(Khotan) 출신 승려들의 활약이 주목된다¹⁷⁾. 또한 7세기 말이 되면서 종교관련 경전의 정리작업이 행해졌는데, 즉 승려 沙明

9) 『舊唐書』 卷6 [本紀] 第6 「則天武后」, p. 115.

10) [唐大薦福寺故寺主翻譯大德法藏和尚傳], 『大正新修大藏經』 (이하 『大藏經』 이라 약칭함) 第 50冊, No. 2054, p. 281 中 및 方立天, 『法藏』, 臺北: 東大圖書, 1991, p. 25.

11) 봉선사동의 조성이 즉천무후가 돌아가신 어머니 楊氏를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顏娟英, 「武則天與唐長安七寶臺石雕佛像」, 『藝術學』 1輯(1987, 3), p. 42 및 주 5 참조.

12) “(前略)此坊有異氣勅掘之得石函, 函內貯佛舍利萬餘粒, 光色粲爛而堅剛, 勅於此處造光宅寺(後略)”(『宋高僧傳』 卷第26 [周京師法成傳] 『大藏經』 第 50冊, No. 2061, pp. 872 下~873 上) 및 『文淵閣四庫全書』 冊 587(臺北: 商務印書館, 1983年) 『長安志』 卷8, p. 127. 이와 관련된 글로는 Chuan-ying Yen(顏娟英), *The Sculpture from the ToWer of Seven Jewels: The Style, Patronage and Iconography of the Monument*, Ph. D. Diss. Harvard Univ. 1987.이 있다.

13) “(前略)智儼付藏, 藏爲則天講新華嚴經, 至天帝網義十重玄門海印三昧門(後略)”(『宋高僧傳』 卷第5 [周洛京佛授記寺法藏傳] 『大藏經』 第50冊, No. 2061, p. 732 上).

14) 『全唐書』 卷97 [高宗武皇后], p. 1002.

15) “(前略) 抑此料紙者, 去文永三年之曆暮秋九月之候, 後嵯峨天皇所降賜也, 不慮之朝恩, 面目頓餘身之間, 漸漸取出之, 以寫如此要書, 以資前院之後菩提, 以祈法皇之御得脫, 冥衆必受哀愍, 所願必得成就矣.”(『華嚴經傳記』 卷第5 『大藏經』 第51冊, No. 2074, p. 173 上).

16) 中國佛教協會, 『中國佛教』 1, 上海: 知識出版社, 1991, pp. 63~64.

17) 코탄지방에서 入唐한 提雲般若(天智)에 의해 689년에서 691년 사이에 『大方廣佛華嚴經』 6部 7卷이 번역된

倭과 번역 승려 20여명으로 하여금 『大周刊定衆經目錄』을 편찬하게 하여 唐代 佛經의 眞僞를 판정하게 하였다¹⁸⁾. 또 張昌宗 등이 편찬한 『三教珠英』은 700년에 완성되었는데, 편찬자들이 모두 道教系의 인물들로서 삼교 중 도교의 우위를 서술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사실은 690년대 중반부터 불교가 도교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는 또한 西域과 印度를 여행한 승려들이 대거 귀국하는 때이다. 645년에 귀국한 玄奘法師²⁰⁾, 64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인도를 왕래했던 王玄策²¹⁾, 그리고 695년에 귀국한 義淨²²⁾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義淨이 저술한 『大唐西域求法高僧傳』이나 『南海寄歸內法傳』²³⁾에서 수많은 入天竺國僧들의 기록이 확인되며, 이 구법승의 여행시기 역시 7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번한 구법활동은 단순히 왕래에만 그치지 않고 7세기 인도불상의 양식이 중국에 새롭게 유입되거나²⁴⁾ 優填王像²⁵⁾, 金剛座眞容像²⁶⁾ 등 새로운

사실이나 같은 지방 출신인 實叉難陀(喜覺)에 의해 695년에서 699년 사이에 『大方廣佛華嚴經』 80卷本の 번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18) “(前略)有沙門明佺者, 不知何許人, (中略), 天冊萬歲元年, 勅令刊定經目, 佺所專纂錄, 編次持疑, 更與讎經大德二十餘人, 同共參正, 號曰大周經錄焉, (後略).”(『宋高僧傳』卷第 2 『大藏經』第 50冊, No. 2061, p. 719 中)과 “(前略)沙門釋明佺, 東都佛授記寺僧也, (中略), 天后天冊萬歲元年乙未勅令刊定經目, (後略)” 『開元釋教錄』卷第 2 『大藏經』第 55冊, No. 2154, p. 565 下. 및 『大周刊定衆經目錄』 『大藏經』第 55冊, No. 2153, pp. 372 下~476 上.
- 19) 『新唐書』卷125 「列傳」第50 [張說傳], pp. 4404~4412 및 『舊唐書』卷97 「列傳」第47 [張說傳], pp.3049~3060.
- 20) 『大唐西域記』 『大藏經』第 51冊, No. 2087, pp. 867 中~947 中. 및 季羨林 校注, 『大唐西域記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5.; 章巽, 芮傳明, 『大唐西域記導讀』, 四川: 巴蜀書社, 1989.; 楊廷福, 『玄奘年譜』, 北京: 中華書局, 1988 등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국내 논문으로는 金理那, 「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 - 菩提樹下 金剛座眞容像을 중심으로 -」 『韓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서울: 知識產業社, 1982, pp. 737~752.(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9, pp. 274~279. 재수록)를 참조.
- 21) 『法苑珠林』 『大藏經』第 53冊, No. 2122, pp. 269 上~1030 上에서 散見되며, 王玄策 史蹟에 관한 연구로는 陸慶夫, 「關於王玄策史蹟研究的幾點商榷」, 『敦煌研究』 1995年 第4期, pp. 171~178.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언급한 글로는 金理那의 앞 책, pp. 279~281. 이 있음.
- 22) 개인적인 행적에 관해서는 『宋高僧傳』卷第 2 『大藏經』第 50冊, No. 2061, pp. 710 中~711 中 및 『開元釋教錄』卷第 9 『大藏經』第 55冊, No. 2154, pp. 567 下~569 中을 참조하고, 구법고승전에 관한 기록은 『大唐西域求法高僧傳』 『大藏經』第 51冊, No. 2066, pp. 1 上~12 中 및 足立喜六 譯註(李龍範 譯), 『大唐西域求法高僧傳』, 現代佛教新書 25, 서울: 東國大學校附設譯經院, 1980을 참조.
- 23) 『南海寄歸內法傳』 『大藏經』第 54冊, No.2125, pp. 204~234.
- 24) 7세기 후반 새롭게 등장하는 圖像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金理那의 글 들이 있다. 앞에 인용했던 논문을 포함하여, 金理那, 「降魔觸地印佛坐像研究」(黃壽永 編,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pp.73~110.(이 글은 주 20의 김리나 책, pp. 291~336. 에도 수록되어 있음)이 있다.
- 25) 우전왕에 대한 기록은 『增一阿含經』卷第 28 『大藏經』第 2冊, . 125, pp. 706 上~708 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高僧法顯傳』 『大藏經』第 51冊, No. 2085, p. 860 中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현장의 『大唐西域記』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 존상에 대한 주요 논고로는 李文生, 「我國石窟中的優填王造像」, 『中原文物』1985年 4期, pp. 102~106(이 글은 그의 책 『龍門石窟與洛陽歷史文化』,

도상이 유행하게 하는 배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7세기 후반 중국불상 조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낙양지역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낙양에 인접하고 있는 용문석굴조상에서 그러한 상황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게 될 大萬伍佛像龕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본 佛龕에 대한 연구의 방법으로 佛龕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한 다음, 尊像의 樣式 考察과 圖像 解析을 통하여 佛龕 조성의 後援者, 時期, 目的을 밝히고, 이들 조상이 지니고 있는 佛敎史的 意義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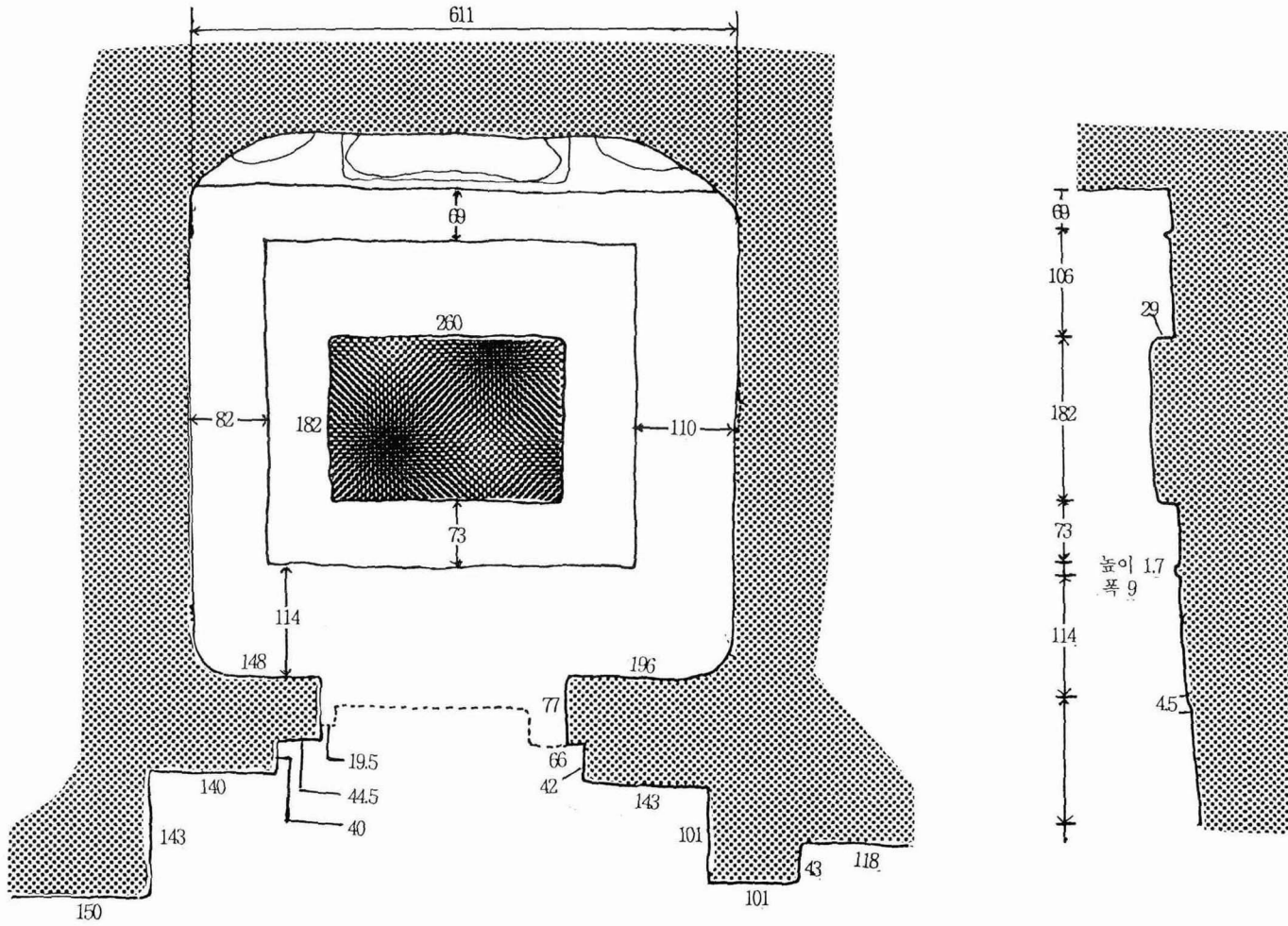
I. 佛龕의 구조와 내용

黃河의 지류인 伊水를 사이에 두고 서산(龍門山)과 동산(香山) 兩岸에 개착되어 있는 용문석굴에서 大萬伍佛像龕은 흔히 擂鼓臺 中洞으로 알려진 佛龕으로 香山 남측 擂鼓臺 南洞과 北洞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²⁷⁾(圖 1-1, 2). 佛龕은 깊이 764cm(굴 내부의 깊이 544cm), 너비 611cm)로, 등근천정에 평면은 長方形이다(圖面 1). 龕 내부의 중앙 바닥에 깊이 1.7cm, 남북과 동서가 각각 419cm, 361cm의 구획이 마련되어 있고, 그 속에 다시 높이 29cm, 남북 260cm, 동서 182cm의 壇이 설치되어 있다.

佛龕 밖 입구 위쪽에 장방형의 구획을 마련하고 唐 楷書體로 왼쪽으로부터 “大萬伍佛像龕”(圖 2)의 窟名이 새겨져 있으며, 입구를 중심으로 위쪽과 남쪽 벽에 작은 불좌상(圖 3)들이 뺄뺄히 부조되어 있다. 또 입구의 남측에 훼손 상태가 심한 仁王像 1존이 조각되어 있으며, 그 반대쪽인 북측에도 원래 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佛龕이 완전히 보수된 상태라 인왕상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龕 안쪽의 정면 벽(동벽)에는 佛三尊像이 고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pp. 47~57에 수록되어 있음), 肥田路美, 「初唐時代における優填王像 - 玄奘の釋迦像請來とその受容の一相」, 『美術史』 120號(1986, 4), pp. 81~94 및 稻本泰生, 「優填王像東傳考 - 中國初唐期を中心に -」 『東方學報』 第69冊(1997), pp.357~457.

- 26) 금강좌진용상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는 주20에 열거된 金理那의 두편의 글과 그 이후에 肥田路美, 「唐代における佛陀伽耶金剛座眞容像の流行について」, 『論叢佛敎美術史』, 東京: 吉川弘文館, 1986, pp. 157~168.이 있다. 이외에 참고할 만한 글로는 Benjamin Rowland, Jr. "Indian Images in Chinese Sculpture," *Artibus Asiae*, vol. X, no. 1(1947), pp. 5~20. ; Alexander C. Soper "Representations of Famous Images at Tun-huang," *Artibus Asiae*, vol. XXVII, no. 4(1965), pp. 349~364.가 있음.
- 27) 조상시기에 따른 석굴 분포를 보면, 서산 북쪽에서부터 開窟되기 시작하여 남쪽으로 진행되다가 동산으로 개굴이 전개되는데 대만오불상감이나 뇌고대 남동, 북동의 경우 동산 석굴조상 중에 그 시기가 가장 이른 예에 속한다.



圖面 1. 대만오불상감 평면도(필자 작도 /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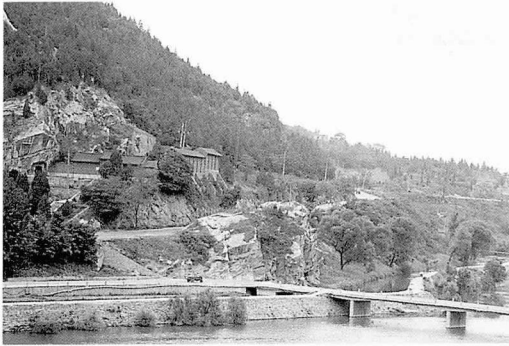


圖 1-1. 뇌고대 원경



圖 1-2. 뇌고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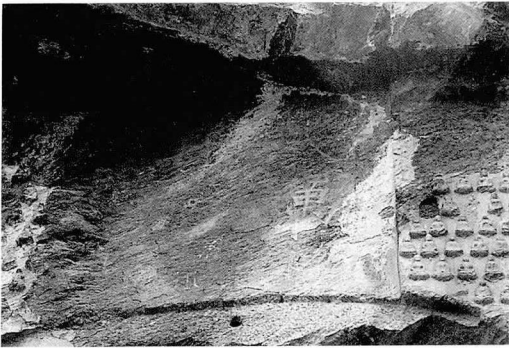


圖 2. “大萬伍佛像龕”刻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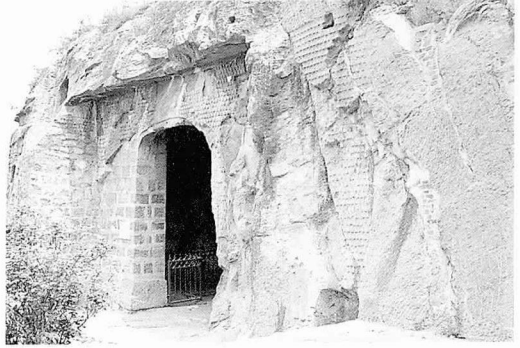


圖 3. 대만오불상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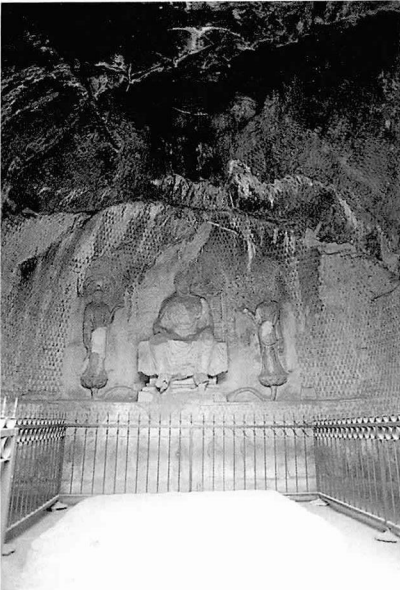


圖 4. 석굴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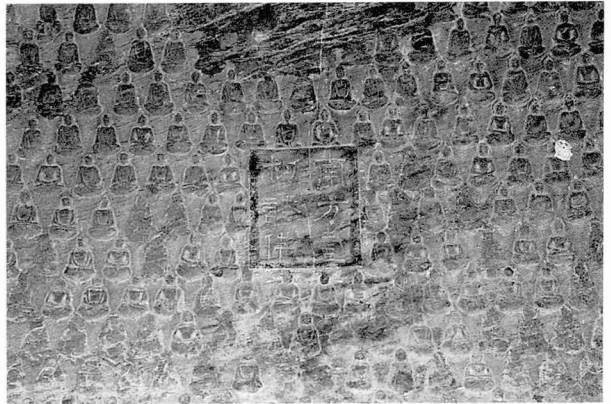


圖 5. 굴내 벽면 및 천정의 소불좌상 부조 및 十方諸佛 刻銘 중 “南方壹切諸佛”



圖 6. 천정 중앙 蓮華 및 “壹” 刻銘



圖 7. 천정 연화 주변 圖像



圖 8. 『付法藏因緣傳』 刻經



圖 9. 공양자상



圖 10. 刻經

벽 둘레에는 바닥으로부터 20 cm 높이에 대략 80 cm 높이의 祖師像(圖 4) 25 존이 일렬로 부조되어 있다. 이들 조사상 위쪽으로天井 蓮花부분을 제외한 모든 벽면에 외관에서 보았던 小佛坐像들이 부조되어 있다. 또 이들 불상 중간중간에 각 방향에 따라서 隸書體로 “上方一切諸佛”“南方一切諸佛”“北方一切諸佛”“東北方一切佛”“東南方一切佛”“西北方一切佛”“西南方一切佛”이라는 명문(圖 5)이 방형구획 속에 음각되어 있다. 또 천정 蓮花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6 字의 刻字 흔적이 있으며, 그 중 확인한 글자는 “壹”字(圖 6)로서, 이는 上方壹切諸佛일 가능성이 있다. 명문 외곽으로 伎樂天, 樂器(細腰鼓 등), 樓觀, 寶幢, 佛像, 각종 동물의 형상 등이 부조되어 있다(圖 7). 한편 25조사상 사이에는 北魏 延興 2年(472년) 吉迦夜와 曇曜에 의해 역출된 『付法藏因緣傳』이²⁸⁾ 새겨져 있으며(圖 8), 이들 존상이 처음 시작되는 남벽에는 2명의 童子가 공양물로 보이는 것을 바쳐주고 있다(圖 9). 이들 동자상과 龕 입구사이에 『佛說阿彌陀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六門陀羅尼經』, 『般若波羅密多心經』의 일부 내용이 새겨져 있다²⁹⁾(圖 10).

II. 佛龕內 諸像의 양식

佛龕 정면 벽 150cm의 높은 대좌 위에 있는 佛三尊像 主尊의 크기는 287cm로, 倚坐 자세를 하고 있으며, 머리와 우측 손과 팔은 훼손되어 있다(圖 11-1, 2, 3). 이 상의 머리(圖 12)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약 69cm로서 頭髮은 波浪式으로 肉髻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마가 넓고 턱은 이중턱으로 좁은 편이다³⁰⁾. 눈은 가늘고 길면서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으며, 視線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 佛衣의 착의 방법은 通肩衣로서, 가슴에서부터 U 자형으로 반복되게 아래로 드리웠다. 衣褶의 처리방식은 얇은 階段式으로 의습 위로 드러나는 신체 표현은 매우 건장하고 풍만한 느낌이다. 어깨는 넓고

28) “(前略)故於北臺石窟, 集諸德僧, 對天竺沙門, 譯付法藏傳并淨土經, 流通後賢, (後略)”(『續高僧傳』卷第 1 『大藏經』第 50冊, No. 2060, p. 428 上.) 및 『付法藏因緣傳』 『大藏經』第 50冊, No. 2058, pp. 297 上~322 中.

29)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北魏 菩提流支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六門陀羅尼經』과 『般若波羅密多心經』은 唐 玄奘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佛說阿彌陀經』은 姚秦의 鳩摩羅什에 의해 번역된 경전이다.

30) 69cm라는 것은 水野清一, 「唐代龍門佛頭二種」 『東方學報』第 21冊(1952) (이글은 주 3의 그의 책 『中國의 佛敎美術』, p. 231)에서이며,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n the Avery Brundage Collection*,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Japan, 1974, pp. 214~216., pl. 106.에서는 그 크기를 26 inch로 되어 있으며, 또 佛頭가 처음 공개된 것은 1929년에 개최된 독일 베를린에서의 중국미술에 대한 전시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龍門石窟研究所, 『龍門流散雕像集』,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p. 48, pl. 56에서는 43cm로 소개되고 있다. 논문으로 처음 소개된 것은 Alexander C. Soper, “Chinese Sculpture in the Avery Brundage Collection” *Apollo*, IX X X IV (August, 1966), p. 110, pl. 9이며, 본문에서 인용한 도판은 용문석굴 개착 1500주년 기념으로 출판한 龍門石窟研究所, 『龍門流散雕像集』,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pl. 56이다.



圖 11-1. 불삼존상 중 주존 정면



圖 11-2. 주존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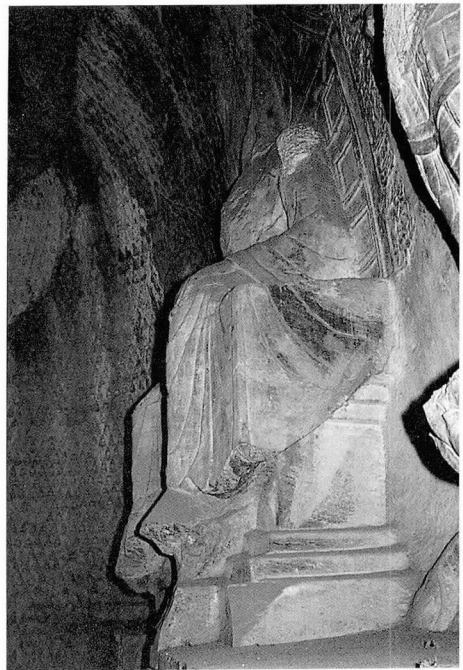


圖 11-3. 주존 우측면

우람하나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되었고, 넓은 가슴에 비교적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다. 두손은 무릎 위에 얹어 놓은 것 같으나 오른손은 현재 파손되었으며, 하체는 다리를 적당한 폭으로 벌리고 무게있게 처리되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이다.

주존불의 광배는 陽刻으로 처리되었는데, 頭光은 2重圓으로 內區에는 蓮瓣紋이 있고, 外區에는 7존의 化佛이 조각되어 있다(圖 13). 身光은 방형으로 그 속을 다시 방형구획하였다. 두 광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擧身光 부분에 山이 표현되어 있고 산 사이에 圓이 묘사되어 있다. 광배 가장자리에는 아래로부터 연화좌에 猛獸를 타고 있는 童子像, 말을 타고 있는 동자상이 표현되어 있다. 신광 부분 좌우 위쪽에는 입을 벌린 코끼리 형태의 怪獸머리가 장식되어 있으며, 괴수의 벌린 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연꽃, 그리고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불상이 부조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는 비스듬히 날아 내려오는 2존의 伎樂天이 묘사되어 있다. 주존의 대좌는 須彌座로서 下臺로부터 脇侍菩薩의 연화좌가 分岐되어 있다.

본존불에서 볼 수 있는 相好의 형태는 673년에 조성된 용문석굴 惠簡洞이나³¹⁾(圖 14) 奉先寺洞 주존의³²⁾(圖 15) 얼굴 표현과 비슷하나 이마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이들 존상보다 길고 턱의 처리에 있어서 보다 뾰족한 편이다. 이러한 변화는 8세기의 불상표현으로 이어지는데, 대체로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天龍山石窟 唐代造像(圖 16)에 이르면³³⁾ 상호의 길이는 더욱 길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눈의 모습에서 가늘고 길게 뜨면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표현은 그 이전의 혜간동이나 680년에 조성된 萬佛洞(圖 17), 봉선사동 주존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크고 눈꼬리는 수평의 위치에 있는 것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주존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의 형태는 7세기말에 조성된 용문석굴 二蓮花洞 주존(圖 18)의 예에서 확인되며, 8세기의 천룡산 조상에 이르면 역시 눈이 더욱 가늘어지면서 눈꼬리는 치켜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체구조에서 가슴과 허리가 분명히 구분되거나 육중한 느낌이 나는 본존의 특징은 역시 혜간동이나 봉선사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7세기 말로 편년되는 古上洞이나 龍華寺洞 정벽佛五尊像의 주존(圖 19)과 비슷하다. 이러한 변화는 천룡산 唐代造像(圖 20)에 이르게 되면

31) 남벽에 造像碑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大唐咸亨四年十一月七日, 西京法海寺僧惠簡奉爲皇帝皇后太子周王, 敬造彌勒像一龕二菩薩神王等, 并德成就伏願皇帝聖花無窮殿下諸王福延萬代”

32) 本尊 蓮華座 中臺 북측면에 唐 開元 10년(722년)에 새긴 [河洛上都龍門山之陽大盧舍那像龕記]가 있다;“大唐高宗天皇之所建也, (中略) 粵以咸亨三年壬申之歲四月一日, 皇后武氏脂粉錢二萬貫, (中略) 至上元二年乙亥十二月三十日畢功, (下略)”

33) 천룡산석굴 당대조상의 편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705년 전후으로부터 조성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천룡산석굴에 대한 논고는 1922년 關野 貞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래로 많은 논고가 있으나 주요 논문으로 다음과 같다; Rhie, M. M., “A T'ang Peroid Stele Inscription and Cave 21 at T'ienlung-shan,” *Archives of Asian Art* vol. 28(1974-1975), pp. 6~23., 李裕群, 「天龍山石窟調查報告」『文物』1991年 1期, pp. 32~55. 및 「天龍山石窟分期研究」『考古學報』1992年 第1期, pp. 35~61, 顏妍英, 「天龍山石窟的省思」『中國考古學與歷史學整合國際研討會』1994年 1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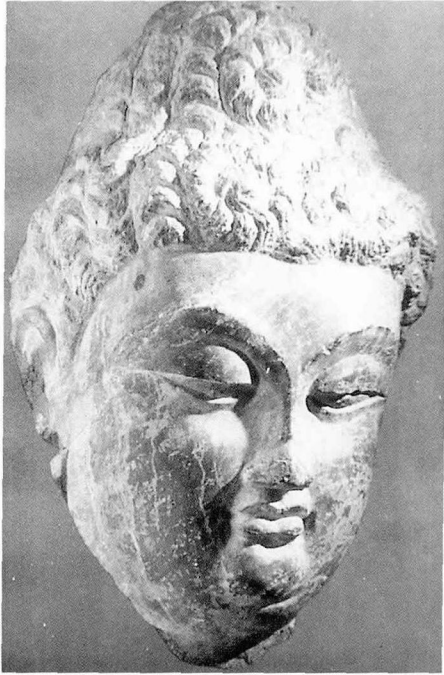


圖 12. 佛頭



圖 13. 불심존상



圖 14. 龍門石窟 惠簡洞 主尊



圖 15. 용문석굴 奉先寺洞 主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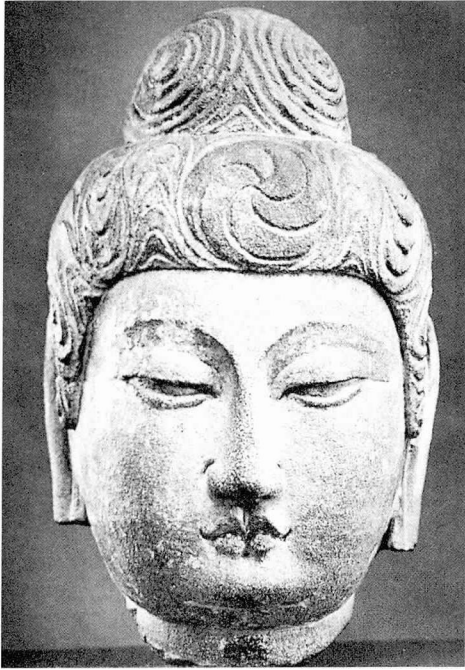


圖 16. 天龍山석굴 唐代 佛頭



圖 17. 용문석굴 萬佛洞 주존



圖 18. 용문석굴 二蓮華洞 주존



圖 19. 용문석굴 龍華寺洞 정벽 主尊

굴곡있는 신체적 특징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허리가 길어지는 반면, 하체의 표현은 주존보다 빈약한 느낌을 주게 된다. 전체적인 신체비례는 670년에서 680년경에 조성된 불상의 경우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큰 편이나 본 佛龕의 주존이 조성되는 시기에 이르면 적당한 비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것이 다시 그 다음에 오는 천룡산석굴 조상에서는 신체가 더욱 장대해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존불의 특징있는 광배형식은 인도의 굽타시대에 유행하였는데(圖 21), 6세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불상이나 敦煌 및 중국 각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며(圖 22), 주로 優填王像의 광배로 사용되고 있다³⁴⁾. 우전왕상 조상 이외에 이러한 屏風형태의 광배를 사용하고 있는 용문석굴의 조상으로는 혜간동(圖 23)이나 용화사동 정벽과 동벽의 존상 등이 있다.

두 협시보살상은 일부분 後補되었으나 두 상 모두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다(圖 24-1, 2). 전체적으로 三屈의 자세를 하고 서 있으며, 얼굴은 긴 편이며 노출된 상체는 가슴 근육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사실적이다.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이 상당히 길며, 어깨가 넓고 허리는 가늘고 길다. 의습은 평편한 느낌으로 의습아래로 아랫배를 약간 내민 모습이다. 협시보살의 광배는 寶珠形으로, 광배속에는 火焰紋이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다. 보살상의 표현에서 이와 같이 三屈로 굽어진 자세나 하체가 길어지는 신체비례가 주는 유려한 모습은 당대의 670년에서 680년에 걸쳐 조성되었던 보살상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700년 전후로 편년되는 寶慶寺 傳來 11面 菩薩像(圖 25)이나 697년의 題記가 있는 용문석굴 極南洞 부근 작은 감에 조성된 보살상에서³⁵⁾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頭光에 양각된 火焰紋 처리방식은 용문석굴 八作寺洞 보살상이나 龍華寺洞 菩薩像(圖 26)의 광배 표현기법과 유사하다.

주위 벽의 하단부에 고부조된 25존의 조사상은 매우 자유로운 모습으로 비례가 적당하고, 각 존상의 성격을 대변해 주기라도 하듯이 얼굴표정이 다양하고 인간다우며 옷주름의 처리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조각수법에서 오는 느낌은 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佛脇侍像으로서의 佛弟子像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경향이다. 이 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東山 看經寺洞의 29 존 조사상(圖 27)은 머리는 고부조로, 신체의 표현은 線 위주의 저부조로 처리되어 있는데 반해, 大萬伍佛像龕의 조사상(圖 28)들은 全身이 고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34) 용문석굴에는 현재 우전왕조상이 42개처 70여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오불상감에도 4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현석굴에는 5존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답사를 통한 확인한 결과 3존 만이 있었다. 우전왕조상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敬善寺洞 북측의 永徽 6년(655년)명 우전왕상이며, 이들 두 지역에서는 대체로 690년대까지 조상이 이어진다. 龍門石窟 우전왕상에 대한 논고로는 주 25의 李文生의 글이 있으며, 鞏縣石窟 우전왕상에 대한 논고로는 傅文魁, 「河南鞏縣石窟寺發現一批石刻和造像龕」, 『文物資料叢刊』 5輯(1981), pp. 139~140이 있다. 또 우전왕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글로는 稻本泰生, 「優填王像東傳考 - 中國初唐期を中心に」, 『東方學報』 第 6冊(1997), pp. 357~457이 있다.

35) 주 1 曾布川寬의 논문, p. 342.



圖 20. 천룡산석굴 18굴 동벽 불좌상



圖 21. 사르나트출토 불좌상(굽타시기)



圖 22. 七寶臺 傳來 佛倚坐像



圖 23. 혜간동 주존 광배



圖 24-1. 좌협시 보살상



圖 24-2. 우협시 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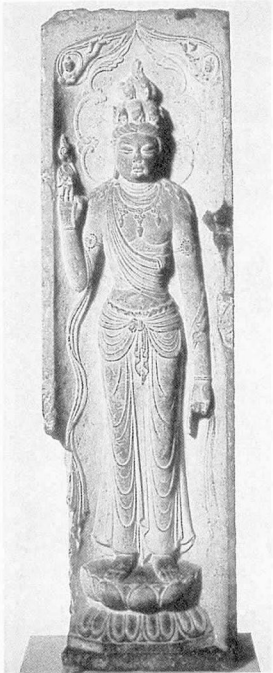


圖 25. 칠보대 전래 보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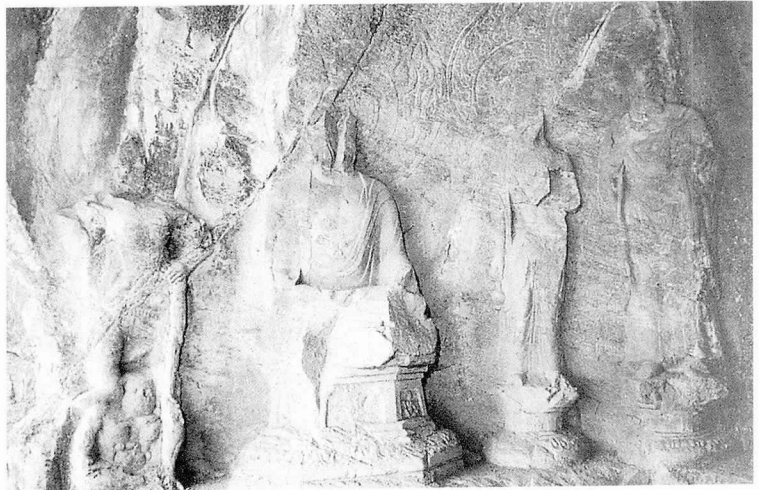


圖 26 용화사동 서벽 광배



圖 27. 용문석굴 看經寺洞 祖師像



圖 28. 대만오불상감 조사상

주위벽과 천정에 묘사된 소불좌상들의 표현 양식은 동일하며, 착의법에 따라 세형식으로 구분되는데, 偏袒右肩의 착의법을 취한 불상들, 이 방법을 약간 변형시킨 불상들, 그리고 通肩의 형식을 취한 불상 등이 있다.

Ⅲ. 諸像의 圖像 해석

大萬伍佛像龕 정면벽의 본존불이 취하고 있는 倚坐 자세의 불상을 전통적인 불교 도상관에 서는 彌勒佛로 알려져 있다³⁶⁾. 실제로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彌勒佛”이라는 명문을 지닌 불상이 몇몇 확인되며, 그 중에 용문석굴의 경우 惠簡洞 주존에서 발견된다. 굴 남측 벽면에 새겨져 있는 銘文에는 西京 法海寺 승려 惠簡이 황제, 황후를 위하여 미륵상 1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다³⁷⁾.

36) 倚坐 姿勢의 존상에 대해서는 李玉珉, 「半跏思惟像再探」, 『故宮學術季刊』 3-3(1986, 2), pp. 41~57.과 石松日奈子, 「彌勒像坐勢研究 - 施無畏印・倚坐の菩薩像を中心に」, 『Museum』 第 502號 1月號(1993, 1), pp. 4~26이 있다. 특히 石松日奈子の 글은 銘文에 의한 고증을 통하여 倚坐像이 彌勒像이라는 전통적인 도상관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河北省 曲陽 修德寺 遺址에서 출토된 北魏 正光元年(520年) 釋迦銘如來倚坐像과 隋 開皇 2年(582年) 四面12龕像 중 北面 上龕의 阿彌陀銘 佛倚坐像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p. 15 및 p. 19 참조).

대만오불상감의 주존은 얇은 자세나 착의법, 광배형식에 이르기까지 혜간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혜간동과 같이 미륵불이어야 할 것이다. 주존의 광배에는 혜간동 주존의 광배나 기타 병풍형 광배에서 볼 수 없는 山과 日月像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圖 29). 불상의 도상에 日月像이 등장하는 如來로는 盧舍那佛의 표현에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프리어(Freer)미술관 소장의 北齊시대 盧舍那佛立像이나³⁸⁾(圖 30) 中國 河南省 安陽 高寒寺에³⁹⁾ 소장되어 있는 盧舍那法界人中像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석불입상(圖 31)은 어깨 부분 왼쪽에 月像이, 오른쪽에 日像이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⁴⁰⁾. 이러한 도상의 연원을 찾아보면 인도 뉴델리(New Delhi)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굽타시대 6세기로 편년되는 호탄의 발와스트(Balwaste)출토 벽화 잔편(圖 33)이 있다⁴¹⁾. 이 불화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放射線 형태의 일상이 묘사되어 있고, 왼쪽 어깨 위에는 반달 모양의 월상이 圖示되어 있다. 이들 일월상 이외에 여러 가지 도상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즉 가슴 중앙의 須彌山과 양 어깨 위의 諸天界, 그리고 그 아래로 人間, 阿修羅 등 三界六道의 諸相이 圖示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불교의 우주관이 표현되는 예 중에 北周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敦煌 제 428굴 남벽 중층에 묘사된 盧舍那佛畫(圖 34)를 들 수 있다⁴²⁾. 주존은 通肩衣를 하고 있으며,

-
- 37) 주 31 참조. 이 像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675년명 불의좌상과 687년명 불비상이 있으며(주 30의 *Chinese, Korean and Japanese Sculpture in the Avery Brundage Collection*, pl. 85, 86 참조), 미국 Chicago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705년명 불의좌상도 그 예이다. 실제로 대만오불상감 주존의 佛性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미륵상으로 이해되어 왔다(주 1, p. 337 과 주 3의 『中國石窟·龍門石窟 II』, p. 274).
- 38) Angela Falco Howard, "The Monumental 'Cosmological Buddha' in The Freer Gallery of Art : Chronology and Style," *Ars Orientalis* vol. XIV(1984), pp. 53~73. 및 *The Imagery of the Cosmological Buddha*, Leiden: E. J Brill, 1986. 프리어 미술관에는 盧舍那石佛立像(이 책, pl. 1~13.)과 線刻碑像(이 책, p. 45, pl. 25.)등 2 예가 소장되어 있다.
- 39) 水野清一, 「いゝゆる華嚴教主盧遮那佛の立像について」, 『東方學報』18冊(1950), pp. 128~137(이 글은 水野清一, 『中國の佛教美術』, 東京: 平凡社, 1990(1966年 初版), pp. 135~155.에 수록되어 있음). 및 Howard의 책, pp. 38~44. 특히 Howard는 고힌사의 불상을 北齊시대로 편년하고, 像의 도상을 도식하였는데(p. 39의 fig. 3.), 좌측어깨 위에 있는 4마리의 소가 묘사된 圓을 月로,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4마리의 말이 묘사되어 있는 圓을 日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40) 어깨 위의 일월상이 표현되어 있는 존상으로는 프랑스 Guimet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金銅佛立像(Howard의 책, pp. 44~46. 및 pl. 21~23. ; 伊東史朗, 「盧舍那佛立像」, 『學叢』2(1980. 3), 京都國立博物館, pp.124~129.) 과(圖 32) 돈황에서 발견되어 현재 영국 British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단 그림(Howard의 책, pl. 45) 등이 있다. 아울러 盧舍那法界人中像에 대한 일반적인 글로는 吉村恰, 「盧舍那法界人中像の研究」, 『美術研究』203號(1958), pp. 14~28과 石田尙豊, 「華嚴經美術の展開」, 『Museum』350號(1980, 5), pp. 4~18이 있다.
- 41) B. Rowland jr., "Indian Images in Chinese Sculpture," *Artibus Asiae*, vol. X no. (1947), pp. 5~20.; "The Bejewelled Buddha in Afganistan," *Artibus Asiae*, vol. XXIV no. 1(1961), pp. 20~24.; Soper A. C., "Representations of Famous Images at Tun-Huang," *Artibus Asiae*, vol. XXVII no. 4(1964), pp. 349~364.
- 42) 敦煌文物研究所 編,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I』, 北京: 文物出版社, 1982, p. 219, pl. 162.



圖 29. 주존 광배의 日月 圖像



圖 30. 프리어미술관 소장 불입상



圖 31. 高寒寺 전래 불입상



圖 32. 기메박물관 소장 금동불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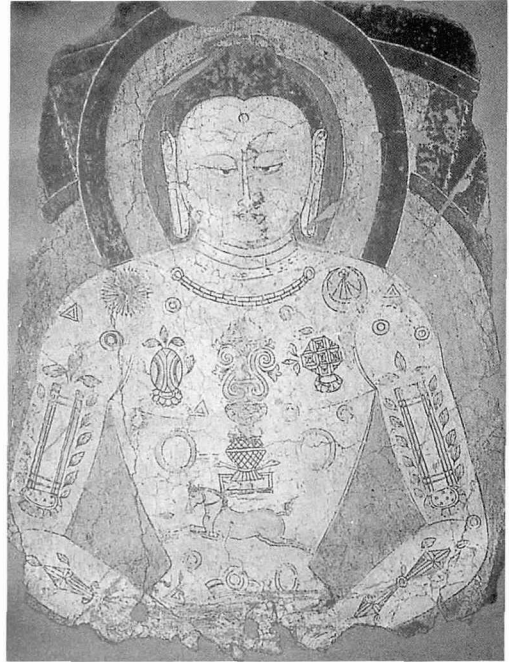


圖 33. 호탄출토 佛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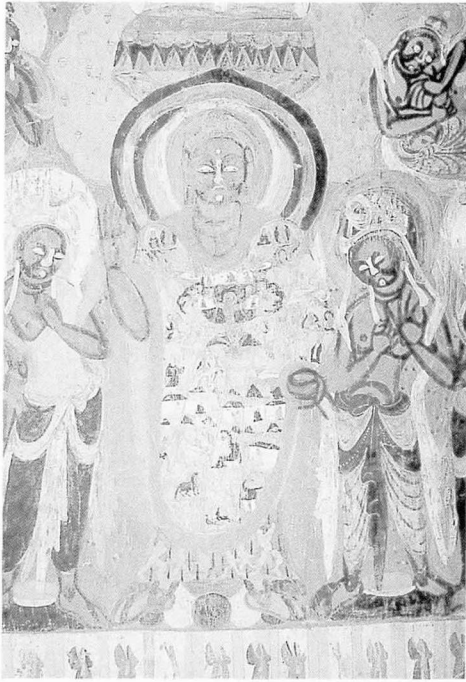


圖 34. 敦煌 莫高窟 428굴 남벽 불화



圖 35. 막고굴 405굴 북벽 불화

주존의 袈裟 위에는 三界의 하나인 欲界가 圖示되어 있다. 윗부분에는 天界를 나타내는 佛像, 天宮, 阿修羅, 飛天이 묘사되어 있으며, 중간부분에는 人間界를 나타내는 四大洲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刀山, 劍池, 餓鬼 등의 地獄界가 묘사되어 있다. 또 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편년되는 둔황 제 405굴 북벽 중앙의 불의좌상(圖 35)은 428굴에서 볼 수 있었던 三界의 도상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坐勢나 광배의 양식이 대만오불상감 주존과 같으며, 특히 어깨 위 광배 부분의 연화장식은 그 위치가 일월상의 위치와 동일하여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⁴³⁾. 특히 이들 도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쿠차(Kucha), 소르축(Schorchuq)의 벽화나 호탄, 도목(Domoko), 페라드 베가이라키(Farhad Begyailaki), 단단 위릭(Dandan Uiliq) 등지에서의 출토품이 그 예이다⁴⁴⁾. 이들 존상에 도시되어 있는 내용은 佛像, 日月像, 梵夾, 金剛杵, 禽鳥, 寶珠, 三角形, 二重圓, 三重圓 등으로 둔황석굴의 예와 비슷하다.

대만오불상감 주존의 袈裟 위에서는 盧舍那法界人中像 형태의 도상은 확인되지 않으나, 굴 천정 연화 주위에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형태의 樂器, 樓觀, 寶幢, 佛像 및 여러 가지 動物 형상 등 三道六界의 圖像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부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중앙아시아

43) 敦煌文物研究所 編, 『中國石窟 敦煌莫高窟Ⅱ』, 北京: 文物出版社, 1984, p. 218, pl. 97.

44) 주 40의 吉村恰의 논문 참조.

출토 盧舍那佛의 佛身에 표현된 도상내용과 유사하다. 이들 도상이 가사 위가 아닌 천정에 묘사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존의 경우 石造로서, 표현기법상 袈裟 위보다 천정 부분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佛龕의 주존이 盧舍那佛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면, 협시보살은 어떤 존상이며, 이들 불삼존상과 주위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만오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大方廣佛華嚴經』(이하 『華嚴經』이라 약칭함)에 의하면, 노사나불과 자주 등장하는 보살은 普賢보살이며, 한쪽이 普賢보살이라면, 다른 한쪽은 文殊보살이어야 한다. 『華嚴經』 [三聖圓融觀門]에서는 이들 삼존을 “華嚴三聖”이라고 부르고 있다⁴⁵⁾. 佛龕 입구 위쪽의 “大萬伍佛像龕”의 大萬五佛은 곧 굴내 각 방향에 부조되어 있는 十方諸佛을 말한다⁴⁶⁾. 『華嚴經』 卷第4 [盧舍那佛品]과 [三聖圓融觀門]의 내용을 보면, 노사나불이 十方世界에 두루 遍在하고 있으며⁴⁷⁾, 三聖과 十方諸佛이 一切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龕 주위의 벽 하부에 부조되어 있는 25조사상과 각 像들 사이에 새겨져 있는 『付法藏因緣傳』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付法藏因緣傳』의 번역 목적은 北魏 太武帝 太平眞君 7년(446년) 廢佛 사건후⁴⁸⁾ 文成帝에 의해 復佛되던 452년이후에 불교계의 중흥과 석가의 가르침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교의 교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경전을 번역하게 된 것이다⁴⁹⁾. 이와 함께 불법을 전하는 전법조사상들을 조성함으로써 당시의 중흥하고 있던 불교계가

45) “三聖者本師毘盧遮那如來普賢文殊二大菩薩是也, (中略) 常見三聖及十方諸菩薩, 一卽一切故, 心境無故, 依此修行一生不剋, 三聖必圓矣” [三聖圓融觀門] 『大藏經』 第 45冊, No. 1882, pp. 671 上~672 上.

46) “大萬伍佛像龕”의 “大”는 일반적인 수식어로 “위대한”, “대단한” 등으로 풀이되며, “萬伍”는 15000을 지칭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十方諸佛을 뜻한다(『佛說佛名經』 卷第1 『大藏經』 第 14冊, No. 440, p. 114). 佛龕 內外壁에 부조되어 있는 小佛像의 橫의인 배열 역시 十方諸佛임을 도상적으로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觀無量壽經義疏』 『大藏經』 第37冊, No. 1752, p.236 上: “(上略)十方佛化卽是橫臥三世佛化卽是豎化(下略)”).

47) “爾時普賢菩薩以偈頌曰, 盧舍那佛遍十方, 出一切化莊嚴身彼亦不來不去, (中略) 或有世界性蓮華上住, 或在無量色蓮華上住, 或依眞珠寶住, 或依諸寶網住, 或依種種衆生身住, 或依佛摩尼寶王住, 或須彌山形, 或河形, 或轉形, 或旋流形, 或輪形, 或樹形, 或樓閣形, 或雲形, 或網形 (下略)” 『大方廣佛華嚴經』 卷第4 『大藏經』 第 10冊, No. 278, p. 414 上中.

48) 『魏書』 卷114 [釋老志], pp. 3033 - 3038.

49) 佛經을 바위에 새기는 최초의 예는 北魏시대에 개착된 龍門石窟 蓮華洞의 『般若婆羅蜜多心經』(龍門文物保管所, 北京大學考古系 編, 『中國石窟·龍門石窟 I』, 北京: 文物出版社·東京: 平凡社, 1991, p. 269)이다. 또 末法의 元年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一說은 釋迦牟尼의 入滅을 주나라 목왕 53년(기원전 949년)으로 계산하여 기원후 552년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경우(『廣弘明集』 卷第1 『大藏經』 第 52冊, No. 2103, p. 100 下 및 『法苑珠林』 卷第12 『大藏經』 第 53冊, No.2122, p. 378 中)이며, 다른 일설에 의하면 427년을 元年으로 보고 있다(下記의 小谷仲男의 논문, pp. 126~128. 참조)견해가 刻經에 관해 최초의 연구는 塚本山隆, 「石經山雲居寺と石刻大藏經」, 『東方學報』 5冊副刊(1935), pp. 1~125.(이글은 수정,보완되어 그의 책 『塚本山隆著作集』 5,大東出版社, 1975에 「房山雲居寺と石刻大藏經」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음)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氣賀澤保規 編 『中國佛教石經の研究-房山雲居寺石經を中心に-』, 京都大學學術出版會, 1996에 실린 여러 편의 논문이 그 예로,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당면했던 위기의식에서 불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은 龕內 前壁 하단부에 刻銘된 경전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刻經은 佛法이 장차 滅한다는 의식에서 승려들은 滅法이 되지 않게 敎法을 창출하는가 하면 부처의 敎法을 보호하기



圖 36. 安陽 寶山 大住聖窟 傳法祖師像 浮彫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즉, 法藏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람에서 불법을 바위에 새기는 것이 그 방법의 하나였다⁵⁰⁾. 이들 전법조사상의 도상이나 각경의 활동은 이후 계속되는데, 589년경으로 편년되는 하남성 安陽 寶山 靈天寺 大住聖窟 굴입구 내 동측 벽의 “世尊去世傳法聖師”의 부조상(圖 36)과 『法華經』, 『大集月藏經』 등의 각경⁵¹⁾, 『歷代名畫記』에 보이는 長安 西塔院이나 西明寺의 전법조사상의 벽화⁵²⁾, 섬서성 扶風縣 法門寺의 [大唐天祐十九年秦王重修法門寺塔廟記]에 보이는 西天祖師像에 대한 기록⁵³⁾, 용문석굴 看經寺洞 주위벽 하단부에 부조되어 있는 29존의 조사상, 568년에서 571년사이에 행했던 北響堂山石窟南洞의 唐邕 각경⁵⁴⁾, 그리고 639년경로 추정되는 房山 雲居寺 靜琬 등의 각경⁵⁵⁾ 등을 들 수 있다.

이 있는 글로는 小谷仲男, 「ガンダラ彌勒信仰と隋唐の末法思想」, pp. 107~131이다. 또 지역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글로는 李裕群, 「鄴城地區石窟與刻經」, 『考古學報』, 1997年 第4期, pp. 443~479가 있으며, 이는 최근 중국에서 출판된 각경에 관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付法藏因緣傳과 도상과의 관계를 고찰한 글로는 水野清一, 「付法藏傳と雲岡石窟」, 『中國の佛教美術』, 東京: 平凡社, 1990(1966年 初版), pp. 332~335(이 글은 원래 『紀元二千六百年記念史學論文集』, 1941에 실렸던 논문임)가 있다.

- 50) 房山 雲居寺 播音洞 문 위쪽에 새겨진 내용에 의하면 貞觀 2年(628년)을 末法이 시작된 지 75년으로 기록하고 正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전을 새긴다는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房山石經 중에서 貞觀 8年(634년)명 『華嚴經』 題記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미래에 재앙을 만나 경전을 잃어 버릴 때 경전의 원본을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있다(주 50 小谷仲男의 논문, p. 108.)
- 51) 河南省古代建築保護研究所, 「河南安陽靈天寺石窟及小南海石窟」, 『文物』 1988年 4期, pp. 1~15 및 大內文雄, 「寶山靈泉寺石窟塔銘研究 - 隋唐時代の寶山靈泉寺」, 『東方學報』 第69冊(1997), pp. 287~355 참조.
- 52) 張彥遠 著, 長廣敏雄 譯註, 『歷代名畫記』, 東京: 平凡社, 1995, p. 221.
- 53) 王昶 輯, [重修法門寺塔廟記], 『金石萃編』 卷119, 北京: 中國書店, 1985.
- 54) 水野清一. 長廣敏雄, 『響堂山石窟』,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1937의 <響堂山石刻錄> 참조.
- 55) 中國佛教協會, 『房山雲居寺石經』, 北京: 文物出版社, 1978, pl. 3 및 北京圖書館 金石組·中國佛教圖書文物館 石經組 編, 『房山石經題記彙編』,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참조.

IV. 佛龕의 造成 목적과 評年

1. 華嚴僧 法藏의 활동과 造像 후원

이 佛龕의 규모는 북위 523년경에 완성된 용문석굴 賓陽三洞⁵⁶⁾이나 672년에서 675년 사이에 개착된 용문석굴 최대의 봉선사동보다는 약간 작으나 6세기 초에 조성된 火燒洞이나⁵⁷⁾ 680년의 萬佛洞 등과 비슷하다⁵⁸⁾. 더우기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뇌고대 남동 및 북동과 함께 조성된 것이라면, 개착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함께 후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조상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거의 같은 규모인 만불동의 경우 沙門인 智運과 大監 姚神表가 天皇과 天后를 위하여 조성한 것이며⁶⁰⁾, 이보다 작은 규모의 혜간동은 승려 惠簡에 의해 개창되었다. 또 봉선사동은 고종황제와 측천무후의 皇室에 의해 후원 조성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비슷한 크기의 高平郡王洞은 측천무후의 외척인 武重規에 의해 690년에서 705년 사이에 개착되었다⁶¹⁾. 이와 같이 唐代에 황실과 권력자의 후원에 의해 조성된 대규모의 용문석굴의 예들과 비교해 볼 때, 대만오불상감도 조각수준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한 지위의 인물에 의해 후원되어 조성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⁶²⁾.

이러한 조성자의 추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佛龕의 내부 조상들의 도상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佛龕에 표현된 주된 것은 『華嚴經』의 내용이다. 華嚴經典은 7세기 후

56) 龍門文物保管所, 北京大學考古系 編, 『中國石窟 龍門石窟 I』, 北京 文物出版社, 1991, pp. 265~266.

57) 위의 책, pp. 277~278.

58) 용문석굴 중에 너비, 깊이, 높이가 각각 5 m 이상인 석굴은 모두 16個所이다.(위의 책과 주 3의 『中國石窟 龍門石窟 II』를 참고한 것임)

59) 大萬伍佛像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일명 “擂鼓臺南洞”과 “擂鼓臺北洞”사이로, 필자는 이 3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西山(龍門山)이나 東山(香山)의 여느 석굴과 달리 擂鼓臺라는 독립된 위치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목적하에서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3굴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고찰한 바가 있으며(裴珍達, 『龍門石窟擂鼓臺3洞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1995), 南洞과 北洞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현재 진행중이다.

60) 굴 입구 북측 벽면의 “沙門智運奉爲天皇天后太子諸王敬造壹萬五千尊像壹龕”이라는 내용과 천정 연화 주위에 “大監姚神表內道場禪師壹萬五千尊像大唐永隆元年十一月廿日成”이라는 내용의 조상기가 있다.

61) 高平郡王洞에는 10개의 조상기가 확인되는데, 이들의 연대는 唐 開元년간의 내용이다. 그러나 고평군왕인 武重規의 기록을 보면, 그가 고평군왕에 封해지는 것은 690년이며, 705년이 되면 半國公으로 降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석굴의 편년을 690년에서 705년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주 3의 『中國石窟·龍門石窟 II』, p. 207참조.

62) 造像者나 後援者의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석굴규모 및 조각수준의 차이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논고를 소개하면, 拙稿, 「龍門石窟 新羅像龕 試論」,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pp. 847~852가 있다.

반 초기에는 60卷本이 유행되다가 佛龕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7세기 말에는 80卷本이 완성되는 등 梵網經 등 화엄계통의 경전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었다⁶³). 그리고 法身佛 毘盧遮那佛의 중요성과 함께 佛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傳法祖師像을 조각하거나 경전을 새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佛法을 傳한다거나 滅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경전을 새겼던 安陽의 여러 석굴이나 北響堂山石窟, 房山 雲居寺 등의 경우, 僧團이나 승려들의 주도에서 개착된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大萬伍佛像龕도 皇室이나 官僚貴族들의 주도하에 조성되었다기보다는 승려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奉先寺洞과 같이 皇室과 연관된 석굴의 경우 조성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 佛龕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佛龕은 華嚴系列의 僧團에 의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아울러 당시 승단의 정치적 입지를 가장 잘 반영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예로 든 다른 석굴의 예에서도 승려들이 참선을 한다든지 하는 등 순수한 修行의 장소로만 사용되는 예들에서 방증된다고 하겠다.

승려들의 주도 하에 조성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도상의 내용상 화엄계통의 승려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화엄계통의 승려로 대표적인 인물은 則天武后을 위하여 華嚴經을 설한 法藏이다⁶⁴). 특히 法藏은 용문석굴 賓陽洞의 『伊闕佛龕之碑』위쪽에 “法藏供養”이라는 그의 조상기를 가진 優填王造像 2龕과 老龍洞 위쪽의 조상기에 보이는 38인의 공양인 이름 속에서 확인되는 “康法藏(부언하자면, 법장의 姓은 康氏임)”에 대한 기록, 그리고 魏字洞 남측 제자상과 보살상 사이에 법장이 677년에 조성한 小龕(“法藏爲父母兄弟姊妹(中略)開封二年四月(下略)”) 등 4개의 조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⁶⁵), 그가 華嚴僧團을 이끌었던 단순한 學僧이 아니라 석굴 조성에도 직접 참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萬伍佛像龕은 화엄경전류가 가장 많이 번역되던 7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서, 화엄신앙 위주의 불교사적 의미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각경이나 전법조사상의 도상이 의미하는 당시 불교계가 직면했던 위기의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63) 당시 화엄경전의 번역은 주로 외국승려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중국 승려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宋高僧傳』卷第2『大藏經』第 50冊, No. 2061, pp. 718 下~719 下의 [唐洛京大遍空寺實叉難陀傳], [周西京廣福寺日照傳], [周洛京魏國東寺天智傳]과 『宋高僧傳』卷第3『大藏經』第 50冊, No. 2061, p. 720의 [唐洛京天竺寺寶思惟傳] 및 [唐洛京長壽寺菩提流志傳] 참조.

64) 주 13 참조.

65) 실제로 법장이 조상활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용문석굴에 보이는 그의 이름이 있는 몇 개의 조상 예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조상은 소규모로 그가 아직 승려로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이전의 조상으로 생각된다. : 溫玉成, 『中國石窟與文化藝術』,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p. 31(溫玉成 著(裴珍達 編譯) 『中國石窟과 文化藝術』, 서울: 景仁文化社, 1996, p. 157.)

2. 武周 新字와 佛龕의 편년

佛龕이 조성된 시기에 관해서는 양식 고찰이나 법장의 활동상황에서 대략 7세기 말로 추측이 가능하겠으나 다시 層位學적인 측면이나 文字解析學적인 측면에서 佛龕의 조성년대를 살펴 볼까 한다.

한 장소에 석굴을 개착할 때, 용문석굴의 경우 우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대규모의 석굴을 개착하고, 개착이 완료된 이후에 주위 외벽을 이용하여 나머지 면에 소규모의 석굴이나 감을 조성한다. 심지어 시일이 흐른 다음에는 석굴 내부까지 기존의 존상들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위에 다시 감을 조성하고 존상을 조상하기도 한다⁶⁶⁾. 따라서 대규모의 석굴을 편년할 때 이들 소규모 감의 조성년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뇌고대위에는 이 佛龕 외에 뇌고대 남동과 북동이 있으며, 기타 소규모의 감이 70여개 남아 있고 이 감들 중에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예도 여러 개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692년에 조성된 것으로 편년되는 劉天洞(圖 37), 701년에 조성된 閻門冬조상감(圖 38)이며, 그 외에 705년, 713년, 714년, 718년 817년 등의 조성년대를 지니고 있는 감이 있다⁶⁷⁾(표 1). 이들 조상의 예를 통하여서도 대만오불상감의 개착년대 역시 대체로 690년에서 705년 사이에 개착되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⁶⁸⁾.

則天武后(689년 - 705년)에는 번역된 경전의 내용이나 조상기의 명문 속에서 武后 特有의 글자(武周制字 혹은 武周新字라 칭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龕內에 새겨진 경전이나 『付法藏因緣傳』의 내용 중에서 武周 新字가 확인된다⁶⁹⁾. 특히 日, 月, 天, 地 등의 글자가 武周字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⁷⁰⁾, 중국에서 이러한 글자가 사용된 시기는 689년에서 705년 사이이다. 이러한 글자는 694년에 조성된 北市綵帛行淨土堂에서도 확인되는데⁷¹⁾, 용문석굴의 경우

66) 溫玉成, 『中國石窟與文化藝術』,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pp.456~461 및 溫玉成(裴珍達 譯註), 「佛敎藝術과 中國文化 - 3-16세기의 中國石窟寺藝術」, 『美術史研究』 제 10호(1996), p.94.

67) 주 59의 논문, pp. 66~67의 [唐代擂鼓臺洞造像銘文]表 참조.

68) 앞에서 열거한 조상감 이외에 龕 문 바깥 남측 인왕상 좌측에 조상기(“佛弟子王楚珪, 佛弟子劉帝釋” 등의 人名과 武周의 年號)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주 3의 『中國石窟 龍門石窟II』, p. 206) 필자의 조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기록을 근거로 주 3의 책에서는 佛龕 조성의 하한 시기를 무주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둔다.

69) 則天武后의 造字에 대한 최초의 논고는 常盤大定, 「武周新字の一研究」, 『東方學報』 6冊(東京, 1936), pp. 5~42가 있으며, 여기에 관한 중국측의 연구는 施安昌의 글들로 대표된다. 施安昌은 1983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가장 최근의 글로는 施安昌, 「武則天造字之訛變 - 兼談含“新字”文物的鑑別」, 『故宮博物院院刊』 1992年 4月, pp. 58~62 가 있다.

70) 宮大中, 『龍門石窟藝術』, 上海人民出版社, 1981, p. 163. 및 주 3의 『中國石窟 龍門石窟II』, pp. 205~206. 참조.

71) 정벽 우측에 『佛說菩薩阿舍欲經』이 刻經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新字가 확인된다.

에는 이 즉천무후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⁷²⁾ 佛龕의 조성시기가 층위학적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관점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佛龕의 조성시기는 690년에서 705년사이로, 또 이 시기는 龕內에 조상된 존상들의 양식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圖 37. 용문석굴 劉天洞 부분(下層)



圖 38. 용문석굴 閻門冬 造像龕 (上龕)

72) 용문석굴의 경우에는 689년에서 704년 사이에 조성되었던 석굴에서만 新字가 발견되나, 타지역의 예를 통해 볼 때, 新字는 비단 이 시기에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清代까지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주 69의 施安昌(1992年)의 논문, p. 61 참조.

<표 1> 播鼓臺洞의 紀年龕

龕番號	龕名	題記內容	造像內容	年代
2068	劉合山造像龕	開元六年十月十五日崔氏造觀音菩薩像	菩薩像1尊	718年
2071	大足元年龕	佛弟子闍門冬奉爲聖神皇帝陛下及太子諸王師僧父母七世先亡法界一切衆生敬造菩提像△龕及諸菩薩以此造像功德普及法界倉生俱出愛河咸昇佛果大足元年三月八日莊嚴成就	佛五尊像	701년
2076	大足元年龕	大足元年兵曹田△忠造像	佛七尊像	701년
2093 2094	劉天洞 上層 劉天洞 下層	佛弟劉天愿行△平安敬造阿彌陀△二軀一心供養天授三年三月八日	上層: 佛九尊像 下層: 正壁 佛三尊像 兩壁 佛坐像10尊	692년

結 語

“播鼓臺中洞”으로 알려져 있는 大萬伍佛像龕은 용문석굴 東山(香山) 제일 남측 “播鼓臺”라는 언덕에 조성되어 있는 佛龕이다. 佛龕은 규모나 양식적인 면에서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佛龕이 조성된 7세기 말 8세기초의 시대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본 佛龕 연구의 방법으로 불상의 양식, 도상 및 조성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佛龕이 지닌 意義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첫째, 양식적인 면에서 볼 때, 佛龕의 조성시기는 대체로 690년에서 7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생각된다. 본 佛龕은 용문석굴 東山조상 중 가장 이른시기에 조성된 예의 하나로, 이 시기는 동산석굴 조상의 개창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상 구조면에서 볼 때, 龕內와 외벽 전면에 걸쳐 소불좌상으로 부조한 형식은 용문석굴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예이다. 감내 벽에 조그마한 형태의 萬五千佛을 조성한 680년의 만불동의 경우, 정벽에 소불좌상을 부조하고 측벽에 優填王像과 함께 千佛을 조상하긴 하였으나 이 佛龕과 같이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뇌고대 남동이나 북동에서만 볼 수 있다.

즉 十方佛의 도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다.

세째, 도상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도식 광배형태나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발견되는 盧舍那法界人中像의 도상 등 印度나 西域적인 요소가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그곳 승려들의 상당수가 入唐한 사실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도상의 주요 내용이 화엄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화엄경의 번역이 주로 호탄지역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시대상황과 佛龕의 도상내용이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³⁾. 또한 이들 요소들은 전통적인 양식과 함께 표현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네째, 石窟史적인 면에서 보면, 규모면에서나 도상 성격 면에서 봉선사동, 만불동과 연결되는 조상이며, 양식적인 면에서는 潛溪寺洞으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인 계보를 이으면서 천룡산석굴 唐代 조상에 선행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⁷⁴⁾. 또 三世信仰이나 전법조사상, 각경활동 등 화엄신앙과 관련하여 安陽지역과의 연관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⁷⁵⁾. 아울러 도상구도적인 측면에서 7세기 말 8세기 초로 편년되는 용문석굴의 조상 예와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천정 연화 가장가리에 명문을 배치하는 것은 만불동과 같으며, 龕內 前壁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벽 하단부에 전법조사상을 조성하기 위한 구획을 설정하고 구획 윗부분을 소불좌상으로 배치하는 형태는 간경사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다섯째, 불교사 및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불교 및 도교의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즉 『三教珠英』이 완성되던 698년에서 700년경에 도교세력이 득세하게 되는데⁷⁶⁾, 700년 5월에는 “久視”의 改元과 함께 “天冊金輪大聖”이라는 즉천무후의 尊號에서 불교적 색채가 강한 “天冊金輪” 4자를 삭제한다⁷⁷⁾. 화엄계열 승려들의 입장에서는 690년경에 이르러 겨우 기존의 法相宗 계열의 玄奘 세력을 물리치고 우위의 입장이 되었는데 10년도 못되어 도교세력들이 정치를 좌우하자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⁷⁸⁾. 이러한 의식이 바로 佛龕에 보이는 화엄경의 도상내용이나 전법조사상, 부법장인연전 및 각경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이상으로 양식과 도상적인 면에서 조상의 편년과 성격에 대해 살펴 보았고, 아울러 조

73) 주 17 참조.

74) 潛溪寺洞을 隋末로 편년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식적인 면에서 용문석굴 당대조상 중에 가장 이른 예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주 1 曾布川寬의 논문. pp. 261~264 참조.

75) 주 52 참조.

76) 주 4, p. 1175 참조.

77) 주 5 참조.

78) 주 4, pp. 1157~1169 참조.

성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불교사나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佛龕을 고찰해 보았으나 본고의 전개과정에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현재 뇌고대 회랑에 진열되어 있는 삼존의 불좌상이 대만오불상감이 조성될 당시 원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⁷⁹⁾, 그리고 감내 천정 연화 중앙의 고리걸이와 바닥에 설치된 壇의 정확한 용도에 대한 고찰이 그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는 북동과 남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라 할 것이다.

79) 대만오불상감에 관한 도판 중 가장 이른 예는 Chavannes의 책(Chavannes Edouard, *Mission Archeologique dans la Chine Septentrionale*, publications del'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vol. 13, 14(1909~1915), Paris.)으로, 이 책의 도판에서는 대만오불상감 정벽의 佛三尊像이외에 중앙에 독립존상 3존이 있다. 이들 삼존상이 회랑으로 옮겨진 시기는 前 龍門文物研究所 所長인李文生 선생에 의하면 1982년이라 한다. 또 원래 이 존상들은 清末에 용문석굴 주변의 사원으로부터 뇌고대동과 간경사동으로 옮겨왔었다고 한다.

[ABSTRACT]

On the Dawanwufoxiang Cave in Longmen

Bae, Jin-dal

This research is an elaboration of the "Lei Gu Tai Chung Tung(擂鼓臺中洞)" in my master's thesis" Research on *Lei Gu Tai Sam Dong*(擂鼓臺三洞) in *Long Men*(龍門) Grotto" Conclusively, I estimate that this grotto began to be made between 690A.D. and 705A.D. and the grotto has several iconographies with representative characters of that period. That is, the time was when three different religions(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came into political conflicts with each other and accordingly Buddhists felt a heavy sense of growing crisis which was realized as the publication of the *Ta Chou K'an Ting Chung Ching Mu Lu*(大周刊定衆經目錄) or the *San Chiao Chu Ying*(三教珠英). Therefore, in the grotto, *Fu Fa Tsang Yin Yüan Ch'uan*(付法藏因緣傳) and other *stūras* were inscribed, which seems to reflect such a sense of crisis. On the other side, the period was also when changes occurred in Buddhist community itself and two main schools lead the stream of the changes, one of which was the *Fa Hsiang* schools(法相宗) with *Hsüan-tsang*(玄奘, ca.596-664) as the central figure sponsored by Emperor *Kao tsung*(高宗) and the other was the *Hua Yen* schools(華嚴宗, *Avatamsaka*) with *Fa Tsang*(法藏, ca.643-712) as the central figure sponsored by *Wu Ze Tian*(武則天). As a result of my research, I conclude that this grotto was constructed by a group of Buddhist priests in the *Hua Yen* schools following *Fa Tsang* and accordingly the grotto had its philosophical background in the *Avatamsaka stūra*.

Moreover, most people including *Hsüan-tsang*, *I-ching*(義淨) and *Wang-Hsüan tse*(王玄策) returned from India at this time and through them new type of Buddhist images, i.e. *Chin Kang T'so Chen Jung hsiang*(金剛座眞容像) or *Yu T'ien Wang hsiang*(優填王像), came in and became popular in china. As for this grotto, the principal image follows the iconography which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Khotan*(于闐) centering around *Balwaste* where the *Avatamsaka stūra*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detail, it was

the mountains and the sun and moon expressed on the soulders of the principal image.

It is thought that this grotto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Lu She Na Fo Pin*(盧舍那佛品)" and the "*San Sheng Yüan Jung Kuan Men*(三聖圓融觀門)" in the *Ta Fang Kuang Fo Hua Yen Ching*(*Avatamsaka stūra*, 大方廣佛華嚴經), which is that the *Shih Fang Chu Fo* (十方諸佛) are gathered in harmony centering around the *Hua Yen San Sheng*(華嚴三聖), that is the *Lu She Na Fo*(*Vairocana*, 盧舍那佛) as a principal image standing between the *Pu Hsien Pu Sa*(普賢菩薩) and *Wen Chu Pu Sa*(*Manjusri*, 文殊菩薩).

Judging from the years and the founder' names inscribed in the ridges carved in the outer wall of the grotto, and from the fact that the inscript in the grotto includes the *Wu Chao Hsin Tzu*(武周 新字), that is, newly made characters during the *Wu Chao* period (武周期, 689 - 705), this grotto is estimated to have been made somewhere between the 690s and 705.

During my research on the grotto, I found that there is a trace of a ring in the middle of the ceiling which is estimated to be used for hanging a canopy. Considering that the principal image is the *Lu She Na Fo* in a standing pose, we can understand that such a pose didn't apply only to the *Mi Le Fo*(*Maitreya*, 彌勒佛).

This grotto is one of the best examples reflecting the current of the late 7th century China. in its style it has both foreign and traditional factors of the *Long Men* grotto. Therefore, it can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that time.